

“올해말까지 코로나19 백신 공급될 수도”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안해 “공평한 분배 위한 헌신 필요”

코로나19 백신이 연말까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WHO 이사국 특별회의의 폐회 발언에서 “우리

는 백신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백신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우리 지도자들의 정치적 헌신”이라며 “우리에게는 연대가 필요하며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올해 말까지 백신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발언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개 안팎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략 이르면 올해 말에 효능을 가진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 연말 백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면 현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 독일 바이오텍과 미국 화이자가 각각 공동 개발 중인 백신 물질이 1순위로 거론된다.
WHO는 백신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충분히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과 함께 코백스(KOVAX)라

는 이름의 백신 공급 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재까지 168개국이 가입한 이 기구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 20억회분 이상의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은 여기서 빠져 있다.
전날 개막해 이를 일정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WHO 이사회 특별 회의는 지난 5일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전 세계 방역 대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34개 이사국 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머스크 스톡옵션 이익 14조원 달성 눈앞 4번째 시가총액 요건 충족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6일(현지시간) 4번째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 844만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요건 충족에 따라 12월에 걸쳐 총 2030만주(주식분할 전 기준)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테슬라 이사회로부터 지난 2018년 부여받았는데 4번째 스톡옵션 행사의 주요 요건인 6개월 이동평균 시총 기준 2500억달러가 이날로 충족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핵심 요건인 테슬라의 조정 에비타(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준 3분기 실적 발표 때 충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물량은 13만9300대로 작년 동기보다 44%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스톡옵션 행사가는 주당 70달러로 정해져 있어 현 주가(414달러)의 17%에 불과한 만큼 새로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매수한 주식을 판다면 약 30억달러(3조4827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전 3차례 행한 스톡옵션 주식까지 포함해 머스크의 이익 규모를 추정하면 118억달러(13조698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보상은 미국에서조차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문 닫은 파리 술집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문 닫힌 술집 앞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이날부터 카페와 술집 등의 영업을 최소 2주간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확진에 16%P까지 격차 벌린 바이든

미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CNN “격차 폭 최대로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공개된 후에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속에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한층 크게 벌리는 양상이다.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1~4일 미 전역 성인 1천2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7%,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다. CNN 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지난달 29일 첫 TV토론 이후다. CNN 방송은 대부분 조사가 2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공개 이후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CNN은 “대선일이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감도 질문에는 바이든 후보가 52%, 트럼프 대통령이 39%였다. 응답자들은 국가 통합에 있어 바이든 후보(61%)가 트럼프 후보(33%)보다 나은 것이라고 평했다.
정직성과 진실성에 있어서도 바이든 후

보가 58%로 트럼프 대통령(33%)을 앞섰다. 여성 유권자의 지지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57% 대 37%였던 것에서 66% 대 32%로 더 크게 벌어졌다.
유색인종 유권자 지지에서도 59%대 31%였던 지난달에 비해 69% 대 27%로 차이가 더 났다.
난장판으로 변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평가까지 나온 지난달 29일 첫 TV토론에 대해서는 57%가 바이든 후보가 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응답은 26%였으며 14%는 둘 다 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IMF 총재 “세계경제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아”

내주 경제 전망 수정치 발표를 앞둔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총재가 6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올해 애초 우려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CNBC가 보도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한 연설에서 “2분기와 3분기 상황은 애초 예상보다 약간 더 좋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치의 소폭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로는 각국의 이례적인 재정·통화 정책 대응을 꼽고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이 12조달러(1경4000조원 상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위험은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어려운 등반로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단기에 이번 코

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향후 경제는 코로나19 전과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례적인 불확실성으로 뒤덮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정책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다며 세계 공공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처음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치도 전했다.
IMF는 오는 13일 세계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7일에는 코로나19의 경제 영향과 기후변화 영향 분석 등 일부 보고서 내용을 미리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지난 6월 제시한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의 GDP 기준 성장률을 -4.9%로 예상했다. 당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세종기지 부근 남극 한 달 넘게 연쇄 지진

규모 3 이상 지진만 1천여 차례

세종과학기지 등이 위치한 남극 지역에서 이례적인 연쇄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 따르면 남극 지역에서 지난 8월 28일 이후 5만 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 이중 규모 3 이상의 지진도 1000회가 넘는다.
지진 발생이 집중되는 곳은 남극 사우스셰틀랜드 제도 킴조지섬 부근 바다다. 킴조지섬에는 세종기지를 포함해 칠레, 아르헨티나 등 10여 개국의 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지진 중 가장 컸던 것은 지난 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며,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도 규모 5.3의 지진이 관측됐다. 남극은 상대적으로

로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연쇄 지진에 전문가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큰 본진 이후 그보다 작은 여진이 이어지는 식이 아니라 규모가 비슷한 지진이 계속 이어지는 ‘군발 지진’으로 보인다고 칠레 지진전문가 호아킨 바스케스는 분석했다.
바스케스는 인포바에 “8월 28일 이후 규모 2.9의 지진을 시작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진 군발지진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규모 5.8 지진 당시엔 아르헨티나 카를리니 기지에 피해가 있었다고 바스케스는 전했다.
칠레대의 세르히오 루이스는 “이례적인 양상”이라며 “이 지역에 역사적으로 지진 활동이 드물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발니 “EU, 러시아 기득권자들 제재해야”

독극물 중독 증세로 독일에서 치료받은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는 유럽연합(EU) 이 러시아의 기득권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나발니는 이날 발행된 독일 일간지 빌트와 인터뷰에서 “EU가 러시아 전체를 제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면서 “러시아 기득권자 개인의 (유럽) 입국을 막고 그들의 (유럽 내) 자산을 동결하는 강력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수십억을 착복하고 주말이면 베를린이나 런던으로 날아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카페에 앉아있다”라고 비난했다.

나발니는 제재해야 할 러시아 기득권자 중 한 명으로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에프를 지목하면서 “발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지원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내 사건에 대해) 조사라고 할 만한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라며 ‘푸틴 배후설’을 강조했다.
또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를 ‘살인자들을 변호하는 푸틴의 심부름꾼’이라고 비난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독일로 수출하는 가스관을 확장하는 사업인 ‘노르드 스트림’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